

‘정부부문 업무의 전산화’

예산업무의 EDPS화와 경제각료교육

안문석

1. 개요

이 사업은 1970년에 시작하여 KIST 전산실의 주력 사업의 하나로 이어져 내려왔다.

최초의 ‘정부 예산업무 EDPS화 연구’는 KIST 전자계산실이 정부 연구 용역을 한 최초의 사업이었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김학렬 씨였고, 예산국장은 김주남 씨 그리고 예산총괄과장은 강경식 씨였다.

이 연구는 KIST 전산실 최초의 정부 연구 용역이었다는 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로 홍릉과 광화문 경제기획원 건물 안에 BATCH 터미널(UT 200)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부터 각 기관은 KIST의 터미널을 설치하여 KIST 컴퓨터를 공유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UT 200 터미널은 카드 리더와 프린터를 갖춘 BATCH 터미널로 요즈음 용어를 빌리면 자체 처리능력이 없는 더미(dummy) 터미널이었다. 그러나 처음에 설치한 CDC MSOS 시스템에는 터미널 처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터미널 처리능력이 있는 CDC MASTER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 이 연구를 계기로 경제기획원 예산 팀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것이 그후 KIST

전산실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특히 김학렬 부총리와 성기수 박사는 이를 계기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김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들 컴퓨터 공부 좀 하세요”라는 지시(?) 때문에 흥릉에는 때 아닌 장관 행차로 분주한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각료들의 컴퓨터 교육은 주로 성기수 박사가 맡아서 했는데, 그 결실이 체신부의 장거리 전화 요금계산 프로그램 개발과 전매청 MIS 연구 등이었다.

초기에 필요한 연구비는 과학기술처 연구비를 사용하였다. 연구책임자는 성기수 전산실 실장이었고, 팀장은 안문석이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작성과 경제기획원 직원교육 등을 안문석 혼자 했으나, 점차로 충원이 되었다. 그 당시 수고한 예산국팀으로는 이근재, 이수자, 김봉일, 이철훈, 김정선, 고재엽(당시 상업은행 행원으로 실무수습중이었음) 등이었다.

제1단계에서는 각부처로부터 올라 온 예산요구서로부터 예산 사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예산 사정의 각 단계마다 예산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 자료를 즉시 프린트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예산분류 코드를 재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재정비 작업은 주로 예산총괄과의 강경식 과장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기본 코드로 장, 관, 항, 세항, 비도, 목을 정하고 코드를 정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항목은 비도 항목이었다. 비도는 예산의 용도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PPBS를 표방하던 그 시절에 미국보다도 앞선 항목이었다고 기억된다.

제2단계는 국회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에는 예산배정에 필요한 자료 분석과 함께 분기별로 각 부처에 대한 예산배정서를 작성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결산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결산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한국은행과 재무부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오랜 시간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KIST 직원이 예산국에 상주하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 예산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 온 강경식 과장이 “우리의 예산제도가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시절이었다.

예산업무 연구는 1972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예산국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등 진취적인 기상이 사라지고 기존의 프로그램만 돌리는 분위기로

바뀌어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예산편성과 사정업무에 국한된 제한된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KIST 전산실에서 개발한 시스템 덕분에, 예산국 직원들은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던 밤샘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예산업무 EDPS화의 제3기는 안문석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 온 1977년이 된다. 초기 예산업무 EDPS화 시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강경식 과장이 예산국장이 되어 있었다. 안문석 박사가 귀국 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예산업무 EDPS화였다.

강경식 국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전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나아가서 공공부문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예산제도를 KDI, 한국은행 및 IBRD 전문가와 함께 개발하였고 이 새 제도를 프로그램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연구로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수고한 사람들로써 신동필, 이준석, 온형순이 있다.

그때에는 전산운영실 이외에도 프로그램 개발팀이 4개 연구실로 나뉘어졌고, 부장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나, 이 연구를 계기로 성기수 박사가 연구부장으로 복귀하였다.

2. 에피소드

첫째 에피소드는 1970년에 경제기획원의 엘리트 직원들이 홍릉에 출근하면서 컴퓨터 언어 교육을 받은 것이다. 팀장은 그후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진설 사무관이었고, 반원은 예산국에서 차출한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거의 3개월을 KIST로 출근하면서 교육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안문석이 담당하였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그후 모두 예산업무 EDPS에 투입되어 프로그램 논리 파악과 자료의 이기 오류 발견 등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둘째 에피소드는 예산업무 EDPS화와 함께 컴퓨터에 대한 교육 홍보 영화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예산국에서는 김주일 씨가 주업무를 맡았고 KIST에서는 안문석이 맡았다. 특히 안문석은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주연 배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셋째 에피소드는 예산실 직원들이 자료 이기 등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자, 당시 김주남 예산

국장은 직원조회에서 “앞으로는 자료를 잘못 작성하는 사람은 막대 그림표로 표시하여 내 방 뒤에 걸어 두겠다”고 협박(?)을 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예산국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직원을 한시간씩 일찍 출근시켜 컴퓨터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넷째 에피소드는 예산국 터미널실 개통식이 끝난 후, 강경식 과장이 돼지머리를 준비하여 고사를 지낸 것이 신문에 가십거리로 등장하였다. 시비는 ‘최 첨단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고사를 지냈다’는 것이었다.

3. 평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통신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정부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서 그후 정부부문 업무의 전산화에 KIST 전산실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로 기록될 것이다.